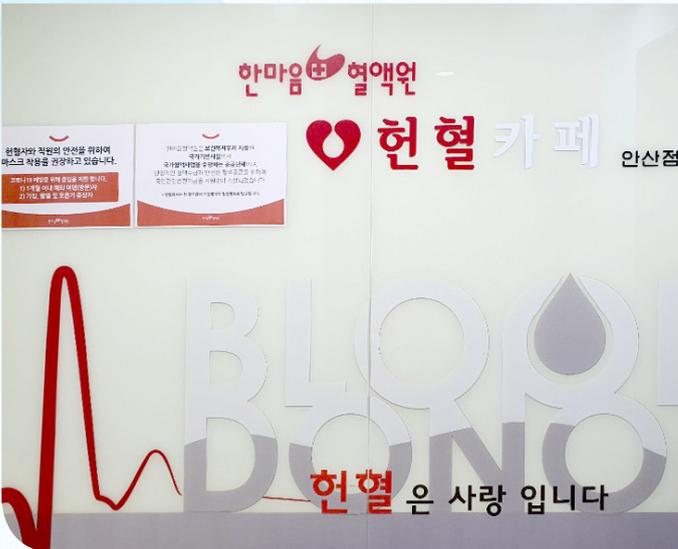


같이 보기

: 함께라는 이름의 대한산업보건협회



together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에 촬영한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꿈꾸는 이들과 다 같이 견뎌냅니다

글·사진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뚫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이뤄낸 것입니다.

해방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데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가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IMF 등 경제 위기 때마다 금 모으기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이 있었기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안산에 위치한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 방문했습니다. 내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작금의 상황에서도 한마음혈액원에는 헌혈로 소중한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줄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운 위기를 ‘함께’, ‘다 같이’ 극복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술한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